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대미술 감상 지도 모형 개발연구
— 초등 3 ~ 6 학년을 중심으로 —

김보화

2020



석 사 학 위 논 문

현대미술 감상 지도 모형 개발연구

- 초등 3~6학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odel of
Contemporary Art Appreciation
-Focused on 3rd~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김 보 화

2020년 2월



석사학위논문

현대미술 감상 지도 모형 개발연구

- 초등 3~6학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odel of
Contemporary Art Appreciation
-Focused on 3rd~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김 보 화

2020년 2월

현대미술 감상 지도 모형 개발연구

- 초등 3~6학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odel of
Contemporary Art Appreciation
-Focused on 3rd~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지도교수 양 경 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김 보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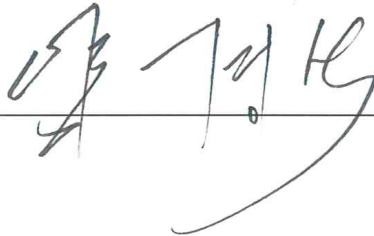

2019년 11월

김 보 화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12월



목 차

| | |
|-----------------------------------|----|
| 국문 초록 | i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
|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 2 |
| II. 감상교육의 이론적 배경 | 3 |
| 1. 감상의 정의 | 3 |
| 2. 감상교육의 내용적 고찰 | 4 |
| 3. 감상 발달 단계 | 13 |
| III. 감상 지도 모형에 대한 고찰 | 18 |
| 1. 감상 지도 모형 탐색 | 18 |
| 2. 감상 지도 모형 비교 | 29 |
| IV. 현대미술 감상 모형 개발 | 32 |
| 1. 현대미술의 정의 | 32 |
| 2. 현대미술의 특징 | 34 |
| 3. 현대미술 감상지도 모형 | 44 |
| V. 결론 및 제언 | 53 |
| 참고 문헌 | 57 |
| ABSTRACT | 59 |

표 목 차

| | |
|--------------------------------------|----|
| 〈표 II-1〉 교육과정 초등학교 감상 영역의 내용체계 | 6 |
| 〈표 II-2〉 감상의 공통된 구성요소 | 9 |
| 〈표 II-3〉 우리나라 미술 감상 교육 목표의 변화 | 10 |
| 〈표 II-4〉 감상발달 단계 및 감상 관점 | 16 |
| 〈표 III-1〉 매디저의 감상 과정 단계 | 18 |
| 〈표 III-2〉 펠드만의 미술비평 단계 | 20 |
| 〈표 III-3〉 문화 맥락적 미술비평 단계 | 23 |
| 〈표 III-4〉 대화중심 감상법 | 25 |
| 〈표 III-5〉 귀납적 사고법 | 26 |
| 〈표 III-6〉 반응중심 학습법 | 28 |
| 〈표 III-7〉 감상지도 모형 비교 | 29 |
| 〈표 IV-1〉 현대 미술의 교육내용 | 35 |

그림 목 차

| | |
|--|----|
| [그림 IV-1] 샘, 마르셀 뒤샹, 1917 | 36 |
| [그림 IV-2] 황소머리, 파블로 피카소, 1942 | 36 |
| [그림 IV-3]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 조셉 코수스, 1965 | 37 |
| [그림 IV-4] 캠벨수프 캔, 앤디워홀, 1962 | 38 |
| [그림 IV-5] 스폰브릿지와 체리, 올덴버그, 1988 | 38 |
| [그림 IV-6] 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것인가, 요셉 보이스, 1965 | 39 |
| [그림 IV-7] 내부, 안젤름 키퍼, 1981 | 40 |
| [그림 IV-8] 깨진 자갈들, 앤디 골즈워시, 1985 | 41 |
| [그림 IV-9] 다다익선, 백남준, 1988 | 42 |
| [그림 IV-10] 유체, 앨런 카프로, 1959 | 43 |
| [그림 IV-11] 현대미술 감상지도 모형의 단계 | 44 |
| [그림 IV-12] 현대미술 감상지도 모형의 단계 설명 | 48 |

국 문 초 록

현대미술 감상 지도 모형 개발연구

- 초등 3~6학년을 중심으로 -

김 보 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경 식

현대 사회에서 감상교육은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며 미술 문화를 향유하고 새로운 표현으로 창조하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범람하는 시각 미디어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감상 교육 또한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의미 있는 감상교육,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작품을 탐구하는 감상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대미술을 활용한 감상 교육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대미술 감상교육 지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감상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감상교육은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체험하며 얻는 내면의 심리적 작용과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 판단하는 인지적 작용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감상 영역은 이해와 비판의 핵심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감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미적 요소의 관

찰과 분석, 미술가·미술사·작품의 배경, 감상태도, 소통과 공유로 공통 요소를 추출할 수 있었다.

현대미술은 modern의 의미와 contemporary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한 양식이나 사조로 정의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양식이 그 다원성을 인정받는 동시대미술(contemporary)의 의미로 현대미술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현대미술은 공통된 양식이나 특징으로 묶어 설명하기 어려우나 기존의 전통적 미술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분류해볼 수 있었다. 첫째, 아이디어와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둘째, 일상 속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형식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원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넷째, 장르와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해체와 확장을 거듭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대미술의 특징은 기존의 감상교육 지도와 다른 방법으로 지도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대미술 감상지도로 탐색-반응-평가와 판단-통합이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형과 수업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일방향의 형식적 절차를 따르기보다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도모형이며 초등학생의 특성 상 개인의 반응과 경험을 중시하고 작품의 맥락적 배경을 알도록 하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내면화한다. 다만, 현대미술 감상지도 모형이 실제 현장에서 한 차시의 개별 수업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교사 나름의 재구성을 통한 연결된 수업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현대미술 감상지도 모형에 따른 수업과 맞는 평가까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

주요어 : 감상교육, 감상교육 발달단계, 감상교육 지도모형, 현대미술의 특징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는 미술을 통해 삶을 풍부하게 경험한다.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이를 매개로 타인과 소통하며 성장하도록 돕는다. 미술을 통해 타인의 감정과 사고에 공감하며 인류의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미술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함으로써 미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교육부, 2015, p.368)

최근 2015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전 학년군에 적용되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핵심 역량과 각 교과마다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미술교육도 교과 역량을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능력, 창의·융합 능력, 미술문화 이해능력,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능력으로 같은 5가지로 제시하였다. 과거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현재는 학생들이 가진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성도, 박상돈, 2018, p.226) 이는 미술 감상교육 또한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는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미술 감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교육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학교의 다양한 업무와 행사로 인해 온전한 미술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미술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미술 경험 특히 감상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감상교육은 시각적 문해력이 강조되면서 그 비중이 더 커졌지만 현실에서는 제자리걸음이다.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하는 시간이 대부분인 미술 경험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

박휘락(2003)은 감상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풍부한 감성적 지능'을 기르는 데 있다고 했다. 또한, 감상의 방법이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학생들의 관

심과 흥미 탐구 속에서 시작되며, 감상자가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탐구가 필요함을 밝혔다. 감상이 시간적으로 교과 내에 얽매어 있거나 공간적으로 교실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감상의 시간과 공간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삶 가까이에서 감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의미 있는 감상교육,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작품을 탐구하는 감상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미술을 통한 감상교육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였다. 학생들이 현대미술을 그들의 삶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 작품에 내재한 의미가 발산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감상교육과 맞닿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감상교육에 대해 이론적인 배경을 더 살펴보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으로 현대미술의 특성을 조사하여 현대미술을 위한 감상교육에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감상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현대미술의 교육적 의미를 찾고 실제 수업현장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현대미술 감상교육 지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감상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감상교육의 의미와 목표를 밝히고 감상의 발달단계를 살펴본다. 감상 발달단계를 통해 초등학교급의 학습자 발달단계에 맞는 감상교육을 알아보고 현대미술을 통한 감상교육의 필요성을 밝힌다. 또한, 기존의 감상지도 모형을 비교, 분석한다. 현대미술을 활용한 감상교육을 위해 현대미술의 특징을 조사하고 현대미술의 특징에 맞는 감상지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대미술이라는 용어가 modern의 의미와 comtempary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그 개념이 광범위하므로 어원을 밝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현대미술의 개념을 제한하여 정의한다.

II. 감상교육의 이론적 배경

1. 감상의 정의

감상은 주로 예술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전적인 감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감상은 예술작품을 형식과 표현 내용 전반에 걸쳐 미를 향수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되었다.(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p.14) 감상(appreciation)의 어원을 살펴보면 ‘appreciation’은 라틴어의 ‘appreciatus’로부터 나온 용어이다. 이 단어는 ‘appraise’ 즉, ‘값을 매기다’, ‘평가하다’, ‘(미적 가치를)감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술작품을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즐기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평가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윈슬로우(L.Winslow)는 미술 감상이 미적 구성에 대한 예민한 의식과 가치의 지각을 통해 미술 경험이나 미술표현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일이라고 밝혔으며(김춘일, 1989, p.220) 김재복(1990)은 감상이 예술작품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감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볼 때 감상은 작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느끼는, 감상자 내면의 심리적인 상호작용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희락(2003)은 감상이 예술작품의 감각적인 형식과 정신적인 내용을 맛보고 즐기는 미적체험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예술을 감수하며 음미하고 평가하는 것을 감상이라고 할 때 ‘감수하고 음미’한다는 것은 예술 작품의 수동적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포함한다. 또한 ‘평가하는 일’이라는 것은 작품에 대해 감상자가 가치를 느끼고 판단과 평가를 한다는 의미이다. 김춘일(1989)은 감상이 인식적인 성격과 감성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감상의 인식적인 성격은 미적 지식을 활용해 작품을 이해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감성적인 성격은 작품의 가치로움을 정서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각과 감각을 통해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감상이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상자의 인지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에서 예술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 평가를 내리는 활동이 감상이라고 한다면 감상과 비평이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평

활동이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비해 감상은 반드시 언어를 그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박휘락, 2003, p.53) 따라서 감상은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체험하며 받는 미적, 감성적인 측면의 심리적 작용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 판단하는 인지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활동이며 비평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감상교육의 내용적 고찰

가. 감상교육의 의미

학교에서의 미술 감상교육은 학생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감상시간은 활동의 범위와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예술작품을 다양하게 체험하기보다는 시각적으로 체험하고 감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라는 장소에서 감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 좁은 의미에서 감상교육은 학교 미술 수업 시간 속에 한정된다.

그러나 비고츠키(Vygotsky, 1978)는 학습이란 단순히 내재적이며 소극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인 담화를 통한 언어로 매개되는 사회적 구성이라 하였다. 즉, 학습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대상과 주변 환경들이 모두 학습자와 관계 맺어지는 사회적 구성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등굣길에 만나는 길가의 꽃향기,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만나는 나무껍질의 감촉, 집 주변의 상가 간판들의 모양을 체험한다.

펠드만(Feldman, 1970)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일상생활과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체험행위는 감상교육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의 감상교육은 학습자의 삶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감상교육은 학습자가 만나는 다양한 예술작품과 주변 현상, 여러 가지 대상의 가치를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종합적 활동에 대한 교수행위이다. 감상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느낄 수 있으며 예술 작품을 보

는 방법을 배우고 여러 관점을 경험하며 미술 문화를 통해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규선 등, 2014, p.312)

나. 감상교육의 목표

1) 감상의 구성요소

교육 목표는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배워야할지의 기준이 된다.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활동 구성이 크게 달라진다. 미술 감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상교육의 목표가 감상활동 행위의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감상의 내용요소에 대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미술과 감상영역을 기준으로 다른 주요 학자들의 감상 능력 구성요소와 비교해보고 감상교육의 목표를 밝히고자 한다.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는 감상 영역의 성격과 내용체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미술작품의 조형적 특징, 작가, 시대적·지역적 배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다양한 비평 관점에 따라 작품을 판단 및 평가한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미술과 다양한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미술 교과와 기초적인 개념 이해 및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p.370)

<표 II-1> 교육과정 초등학교 감상 영역의 내용 체계

| 핵심 개념 | 일반화된 지식 | 내용 요소 | |
|----------|--|------------------|---------------|
| | | 3-4학년 | 5-6학년 |
| 이해 | 미술 작품은 시대와 지역의 배경을 반영하고 있어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는 시대적 변천, 맥락 등을 바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작품과 미술가 | 작품과 배경 |
| 비평 | 미술작품의 가치 판단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활용한 비평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 작품의 내용과 형식 |
| | | 감상 태도 | 감상방법 |

주. 출처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p.372) 교육부, 2015

감상의 영역은 크게 이해와 비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품과 미술가, 배경,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작품의 내용과 형식, 미술 작품 감상 태도와 방법을 감상의 내용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랜싱(Lansing, 1971)은 블룸(Bloom)의 행동 분류에 따라 미술교육의 목표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미술에 있어서의 지식의 구조(인지적 영역), 두 번째, 미술에 있어서의 태도의 구조(정의적 영역), 세 번째, 미술에 있어서의 기능의 구조(정의적 영역)이다. (Lansing, 1971; 이규선 등, 2014, p.315에서 재인용) 지식의 구조는 생활에 대한 지식(경험의 미적 차원), 미에 대한 지식(미술의 본질, 미술의 가치, 미적 경험 등), 미적 구성에 대한 지식,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한 지식, 미술사에 대한 정보를 뜻한다. 태도의 구조는 경험의 미적 차원에 대한 관심, 미술품을 만들고 평가하는 능력 및 자신감, 여러 가지 미술의 형식과 양식에 대한 개방, 작품 제작이나 감상활동을 오래 견디며 해내는 지구력을 포함한다. 기능의 구조는 여러 미술 교재와 연모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눈과 손의 협응력이다. 랜싱의 미술교육 목표 중 감상의 구성요소는 지식의 구조와 태도의 구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감상영역의 성격과 비교하였을 때 랜싱이 미적 구성에 대한 지식, 작품과 작가를 포함한 미술사에 대한 정보, 미술 형식이나 양식에 대한 개방성과 같은 존중의 태도, 그리고 종합적으로 미술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술품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감상 능력의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종미, 노용(2003)은 표현력과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미술 교육의 문제에서 벗어나 미술에 대한 학습자의 미적 안목을 높이고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미술 감상력 평가 4가지 영역을 구성하였다. ‘작품에 대한 기술’, ‘작품에 대한 느낌 표현’, ‘미적 요소의 관찰과 분석’, ‘작가 의도에 따른 주제 정하기’의 네 영역이다.(pp.9-15)

김병호(2007)는 감상능력 평가를 위해 미술 감상 기준을 4가지 선정하였다. 내용적인 면에서 ‘미술 작품을 서술’하는 것으로 미술 작품의 표현 특징을 조형요소와 원리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감상한 내용을 표현하는 면에서 ‘미술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으로, 탐구전략의 면에서는 ‘작가의 표현 의도와 주제, 표현 방법, 재료와 기법 등을 복합적으로 탐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학습자 ‘성향’의 측면에서는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및 작품 탐구 의지’이다.(pp.70-74)

류지영(2016)은 미술 감상교육의 능력을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감상교육을 통해 ‘사고능력’, ‘소통능력’, ‘문화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능력은 반성적 사고와 탐구로서의 학습이다. 학습자의 감상 활동 내용으로는 미술 자료와 대상에 대한 지식, 인지, 메타인지이다. 소통 능력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학습능력이다. 학습과정 및 학습내용의 공유, 학습 내용의 표현 등이 있다. 문화능력은 자신과 사회를 지속적으로 구성하는 실천으로서의 학습이며 미술문화 리터러시 및 자료 활용이 포함된다.(pp.117-120)

배진희, 류재만(2018)은 미술 감상 능력의 구조를 블룸(Bloom)의 교육목표 분류를 기반으로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소통적 영역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인지적 영역에는 작품관찰 및 기술,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미적 요소의 관찰과 분석, 표현 방법과 재료의 이해, 작가의 의도와 주제해석을 두었다.

정의적 영역은 감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감상활동의 가치를 알고 생활 속에서 즐기려는 태도로 구성하였으며 소통적 영역에는 작품에 대한 생각과 의견 공유,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감상의 확장이 있다.(pp.85-86)

감상의 구성요소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와 2015개정 교육과정의 미술 감상영역 내용요소를 비교한 결과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미적 요소의 관찰과 분석’, ‘미술가, 미술사, 작품의 배경’, ‘감상 태도’, ‘소통과 공유’를 공통된 요소로 선정하였다.

<표 II-2> 감상의 공통된 구성요소

| 미술 감상의 내용 요소 | | | | | | |
|-------------------------------------|------------------------|---|----------------------------------|--|---------------------------------------|------------------------|
| 랜싱 (1971) | 박종미, 노용 (2003) | 김병호 (2007) | 류지영 (2016) | 배진희, 류재만 (2018) | 교육부 (2015) | 공통 요소 |
| | 작품에 대한 느낌 표현 | | 학습 내용의 표현 |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표현 |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
| 미적 구성에 대한 지식 | 작품에 대한 기술 | 미술 작품 서술(내용) | | 작품 관찰 및 기술 | | |
| | 미적 요소의 관찰과 분석 | 미술 용어의 적절한 사용 (표현) | 자료와 대상에 대한 지식, 자료 활용 | 미적 요소의 관찰과 분석 | 작품 내용과 형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 | 미적요소의 관찰과 분석 |
| 미술사에 대한 정보 | 주제 정하기 | 작가의 표현 의도, 주제, 표현방법, 표현 재료와 기법을 복합 적으로 탐구 (탐구 전략) | | 표현 방법과 재료 이해 작가의 의도· 주제 해석 | 작품과 미술가, 작품과 배경 | 미술가, 미술사, 작품의 배경 |
| 미술 형식, 양식에 대한 다양성 존중 | |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및 작품 탐구 의지(성향) | | 적극적인 감상 활동 참여 감상활동 생활화 및 즐거는 태도 | 감상 태도 | 감상 태도 |
| | | | 학습과정 및 학습 내용의 공유 | 작품에 대한 생각과 의견 공유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감상의 확장 | | 소통과 공유 |

2) 우리나라 감상교육의 목표 변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속에서 감상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차~7차, 2007, 2009, 2015개정으로 변화해왔다. 1차, 2차 교육과정의 경험주의적 생활 중심에서 3차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4~7차의 인문주의적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했다.(이규선 등, 2014, pp.315-317) 2007, 2009개정을 거쳐 2015개정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기까지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감상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3> 우리나라 미술 감상 교육 목표의 변화

| 감상교육의 목표 | |
|----------|---|
| 1차 | 자연의 미와 조형의 미 또는 글씨를 감상하는 능력을 기른다. |
| 2차 | 자연미와 조형품을 감상함으로써 미적 정서를 길러 조형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아끼고 보존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
| 3차 |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의 조형품을 감상할 줄 알며, 아울러 미를 애호하고 보존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른다. |
| 4차 | 우리의 자연과 조형품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애호할 수 있는 감상 능력을 기른다. |
| 5차 | 우리나라의 자연과 조형품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애호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 6차 | 미술품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 7차 |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문화 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
| 2007개정 |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
| 2009개정 |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 2015개정 | 미술작품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미술을 생활화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감상교육의 목표가 위의 표처럼 조금씩 바뀌어왔으나 본질적인 목표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II-3>를 종합해본 결과 감상교육은 첫 째, 자연이나 조형품 등 미적 대상을 느끼고 이해하는 미적 감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 째, 미술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감상활동의 교육적 의의

1) 전인적 인간

감상활동은 학습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미적인 활동에서부터 시작한다. 미에 대한 향수능력을 길러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교육이다. 감성은 지성과 결부된 인간의 인식 능력 중 하나로 외부의 다양한 현상으로부터 좋은 점과 아름다운 점 등 가치 있는 것을 느끼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수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박휘락, 2003, p.28) 미술작품 감상은 학습자가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해, 분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깊이 내면화하도록 한다. 감상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감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감상은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똑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표현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은 각기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작가의 표현 의도와 기법, 형식,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폭 넓은 사고를 하도록 돕는다.

미술은 관객에게 작품의 배경 지식을 요구한다. 감상은 바라본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작품의 주제, 개념, 상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시대, 문화, 작가를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감상활동을 하는 학습자의 내면적인 활동, 즉 작품을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통해 작품을 내면화, 재창조한다는 것을 뜻한다.(안금희, 라현숙, 2006, p.254) 작품을 보고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은 내면의 정신적인 자기창조이다.

감상은 자신의 정신적인 내면을 표현하도록 도우며 이성과 감성을 고루 발달하도록 하고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여 폭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인적 인간을 기른다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

2) 미래사회의 세계 시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감상의 대상도 확장되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흐름에서 시각문화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시각문화란 종래의 순수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는 사진, TV, 영화, 비디오, 만화, 광고, 포스터, 인터넷 상의 UCC 등 다양한 대중문화를 포괄한다.(교육부, 미술지도서 총론 p.22) 올바른 가치판단을 통해 시각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래 사회의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감상교육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감상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이후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다원주의 문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감상교육을 통해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대해 배우며 특정 문화에 반영된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을 배울 수 있다. 감상교육은 자신과 다른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다양한 대중문화가 범람하는 시대에 감상교육은 학습자에게 시각적 문해력을 기르고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 또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미래 사회의 세계 시민을 기른다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

3) 미술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는 인간

미술 감상과 표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감상 능력과 표현 능력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성장한다. 작품에서 어떤 가치를 느껴 깊이 감상하는 일은 자기표현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박휘락, 2003, p.34) 학교의 감상교육은 이러한 이유로 표현 교육과 연결 지어 이루어진다.

감상은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행위를 통해 미술문화를 정서적,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미술문화를 보존하고 표현 동기를 느껴 새롭게 창조하기까지 이를 수 있다. 감상교육이 미술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는 인간을 기를 수 있다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

3. 감상의 발달단계

1800년대 후반부터 아동미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인간의 표현 능력은 보통 무의식적으로 그리는 난화기에서 도식이 조금씩 나타나는 상징기로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기로 변화한다.(방성훈, 2009, p.30)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이르러 학자들은 미적 감수능력의 발달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간의 심리적 성장 정도에 따라 미적 감수성도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드너(Gardner), 파슨스(Parsons)의 감상발달 단계와 에릭슨과 클로버(Erickson & Clover)의 미술 감상 관점을 살펴보고 후에 현대미술 감상지도 모형 개발에 유의미한 점이 있는지 밝히고자한다.

가. 가드너의 감상발달 단계

가드너(1981)는 어린이의 감상 능력 발달 단계를 지각의 단계, 상징 인식의 단계, 사실주의 단계, 탈사실주의와 미적감수성 출현의 단계, 예술적 위기의 단계의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Gardner, 1981; 이규선 등, 2014, pp.323-324에서 재인용)

지각의 단계는 0세부터 2세 사이의 단계이며 사물을 인식하는 시각을 발달시키는 단계이다. 이는 나중에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필요한 시각 능력을 발달시키며 인간 세계의 공간적 형태를 구별하는 단계이다.

다음은 상징 인식의 단계로 2세부터 7세 사이의 시기이다. 예술적 지각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대상을 감상할 때 내용을 중심으로 개념적인 관점에서 감상하게 되는 시기이다. 사물과 기호, 사물과 상징화된 대상의 관계를 인식한다. 인식이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충동에 따르게 되므로 표현된 상징의 즉각적인 지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실주의 단계로서 7세부터 9세까지 초등 저학년 아동이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규칙과 전통을 배우는 시기로 지각의 능력에 있어서도 사실적인 것을 지향하고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감상의 과정에서 사진과 같이 사실적인 것을 선호하고 사실과 다른 환상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은 경시하는 경향을 갖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탈사실주의와 미적 감수성 출현의 단계로서 9세에서 13세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시기이다. 실제 사물이 지시하는 상징보다도 표현적인 면에 주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미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색다른 특성들을 지각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이다. 일정한 양식에서 벗어난 것도 인정하고 감수성도 예민해진다.

마지막 단계는 예술적 위기의 단계이다. 청년기의 시기로 이 시기는 미술에 대한 관심이 다른 활동으로 분산되거나 개성적인 예술에 몰입하게 되는 단계이다. 자신의 표현을 잘 하지 않으려 하며 타인의 노력에도 무관심하다. 하지만 판단의 객관도가 높아지며 높은 훈련에 의해 결정적 예술이 되기도 한다.

나. 파슨스의 감상발달 단계

파슨스(1987)는 피아제의 인지심리학과 콜버그의 도덕판단 발달단계를 접목하여 미적 인식에 대한 발달 연구를 하였다. 파슨스 또한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한다. 각 단계마다 주제, 표출, 매체·형·양식, 판단의 네 가지 관점을 관련지어 개인적 선호, 미와 사실주의, 표현주의, 양식과 형태, 자율성의 다섯 단계로 제시하였다. (Pasons, 1987; 박회락, 2003, pp.93-97에서 재인용)

개인적 선호의 단계는 유아나 유치원 어린이들의 단계로 직관적으로 그림을 느끼고 자신에게 기쁨을 느끼게 하는 작품을 좋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에서 판단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 또는 객관적 타당성의 문제는 아니다.

미와 사실주의 단계는 초등, 중등학생들의 단계로 사실적인 표현을 추구하며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는가 작품에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기량과 끈기를 좋아한다. 앞 단계와 달라진 점은 타인이 그림을 보는 관점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표현주의의 단계는 20대 대학생들의 단계로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술작품이 작가의 감정과 생각을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을 감상할 때 창조성, 독창성, 감정의 깊이가 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양식과 형태의 단계와 자율성의 단계는 연령의 단계가 아니라 경험과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양식과 형태의 단계는 작품이 사회적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미술에 있어서 어떤 양식이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

회 문화의 상징으로 나타남을 이해한다.

자율성의 단계에서는 예술작품의 가치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동시대의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함을 이해한다. 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적 맥락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판단을 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임을 의식하여 자율적으로 감상을 할 수 있는 단계이다.

다. 에릭슨과 클로버의 미술 감상 관점

에릭슨과 클로버(Erickson & Clover, 2003)는 파슨스의 감상 발달단계를 보완하여 미술 감상의 관점을 5개로 제시하였다. 비 반성적, 미·사실주의·기술, 감정과 아이디어의 표현, 단일미술계, 복수미술계 이 다섯 가지 관점은 앞선 감상 발달단계처럼 감상능력의 성장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얻는 특성이 아니다. 감상자가 더 많은 관점을 이해할수록 미술 감상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본다. (강주희, 이지연, 2012, pp.11-13에서 재인용)

비 반성적 관점은 예술작품 판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작품 자체 외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관점이다. 작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작품에서 연상되는 것을 바로 말하는 반응을 보인다.

미·사실주의·기술은 예술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한다. 사실적인 주제 표현을 한 작품이나 표현 기술이 뛰어난 것을 좋아한다.

감정과 아이디어 표현 관점은 작품의 가치나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이다. 미술작품이 하나의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여긴다. 예술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단일미술계 관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미적 지식과 기술에 익숙하며 작품을 평가할 때 그 작품의 아이디어나 가치, 특정 미술 분야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상할 수 있다.

복수미술계 관점은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미술가들의 생각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 관점 중에서 자신이 감상하는 작품에 가장 어울리는 관점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초등 감상발달 단계에서 현대미술의 필요성

위의 감상발달 단계 및 관점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의 <표 II-4>와 같다.

<표 II-4> 감상발달 단계 및 감상 관점

| 가드너 | 파슨스 | 에릭슨과 클로버 |
|----------------------|---------|-------------|
| 지각 | 개인적 선호 | 비 반성적 |
| 상징 인식 | 미와 사실주의 | 미·사실주의·기술 |
| 사실주의 | 표현주의 | 감정과 아이디어 표현 |
| 탈 사실주의와 미적 감수성 출현 | 양식과 형태 | 단일미술계 |
| 예술적 위기 | 자율성 | 복수미술계 |

미적 발달은 개인적 선호와 직관적인 자기중심적 성격의 단계에서 분석적이고 서술적인 단계로, 또 더 나아가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사회적 맥락과 경험을 고려하는 감상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단계의 절차와 관점을 살펴보았을 때 깊이 있는 감상이란 작품의 다원주의적 의미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살펴본 감상발달 단계에서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단계는 가드너의 이론에서 사실주의, 탈사실주의와 미적 감수성 출현의 단계이고 파슨스의 이론에서 미와 사실주의의 단계이다. 가드너의 ‘사실주의 단계’와 파슨스의 ‘미와 사실주의 단계’를 비교해보았을 때 공통적인 특징은 표현에서의 사실성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 사실적이지 않은 표현과 주제를 경시하는 경향을 갖기 쉽다. 교사는 수업 장면에서 아동들이 이러한 고정관념에 얽매이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드너의 ‘탈사실주의와 미적 감수성의 출현 단계’에서는 재제에만 쫓려있

던 관심이 표현 방법에도 기울며 무엇을 그렸는가보다 그린 방법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진다. 표현의 다양한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규칙을 깨는 것을 시도하게 된다.

사실주의 단계에서 교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에게 사실적인 관찰을 통해 이러한 감상발달 단계를 키워주는 교육도 해야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을 스스로 깨고 학습자 내면의 개성과 창의성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탈사실주의와 미적 감수성 출현의 단계에서 교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여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한다.(이규선 등, 2014, p.324) 현대미술의 다양한 표현 방식과 전통적인 규칙을 깨는 과감한 형식의 작품들은 이 시기의 학습자에게 더욱 유용한 감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대미술 감상을 통해 사실주의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방식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감상 능력을 더욱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대미술에서 작품과 감상자 사이에는 능동적인 소통이 일어난다. (Jameson, 1991; 강주희, 이지연, 2012, p.14에서 재인용) 현대미술은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감상자와 소통을 시도하므로 현대미술을 감상지도에 활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다원주의적 가치를 수용하도록 돕고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높은 단계의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대미술 감상 교육은 작가와 학습자 사이의 미적 관점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며 학습자의 감상 관점을 다양하게 확장시키고 깊이 있게 정교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Ⅲ. 감상지도 모형에 대한 고찰

1. 감상지도 모형 탐색

가. 매디저의 감상 과정 단계

매디저(Madeja, 1977)는 아른하임(Arnheim)의 시지각이론을 바탕으로 감상의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관찰, 진술, 선택, 일반화의 네 단계는 다음과 같다.(김춘일, 1989, pp.299-302)

<표 Ⅲ-1> 매디저의 감상 과정 단계

| | |
|-----|--|
| 관찰 | - 다양한 시각적 자극의 수용을 위한 관찰 훈련이 필요함 |
| 진술 | - 작품에 표현된 조형요소의 인식 - 대상과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 |
| 선택 | - 시각적 자극 중 의미 있는 것 선택 |
| 일반화 | - 작품 특성의 보편성 확인 - 일반화 한 내용 설명, 정당화 |

1) 관찰

미술 교육을 통해 예민한 시지각과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면 관찰은 이러한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이다. 매디저는 관찰에 담긴 의미가 광범위하다고 보고 작품을 관찰하는 데에도 훈련이 필요함을 밝혔다. 대상의 현상을 관찰할 수도, 작품의 전체적인 조화를 관찰할 수도, 세부적인 부분을 관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찰을 훈련함으로써 학습자는 작품의 다양한 시각적 자극을 느낄 수 있게 되며 이런 다양한 시각적 자극을 수용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2) 진술

예술작품을 볼 때, 작품에서 표현된 것을 인식하고 이를 언어로 기술하는 단계이다. 즉 작품에서 표현된 선, 형, 색, 운동감 등 조형요소들을 인식하지만 각각의 조형요소들을 독립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들이 모여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미술 감상의 지도는 이 '새로운 관계의 지각'을 중요하게 여겨야한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에 대한 진술을 위해 다시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작품 속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 말하도록 한다. 둘째, 요소와 요소, 대상과 대상의 전체적인 어울림을 보고 말하도록 한다. 셋째, 주어진 환경과 그 작품의 어울림의 효과를 보고 말하도록 한다.

3) 선택

아른하임은 모든 인식 활동에는 '선택'이 따른다고 보았다. 선택의 과정은 카메라가 한 대상에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는 과정과 같다. 학습자가 이전 단계에서 작품을 관찰하고 기술할 때 받았던 모든 시각적 자극 중에서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판단하여 선택하는 단계이다.

4) 일반화

학습자는 이전 단계에서 선택했던 작품의 특성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보편성을 확인하게 된다. 시각 현상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단계이다. 그리고 일반화한 것을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단계이다. 자신이 발견한 대상의 미적 특성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게 된다.

김춘일(1989)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며 학습자 내면의 시지각 과정을 통해 예술작품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감상의 본질이라고 보고 미술감상 지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대상을 학습자의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관찰하고(1단계), 모든 시각적 자극을 주의 깊게 의식하여(2단계), 그 중에서 특정 대상이나 요소를 선택하여 미적 특성을 발견하고(3단계), 이에 가치를 부여하고 정당화하는 과정(4단계)을 거친다. 그러나 복잡한 지각의 과정을 실용적으로 실제 미술감상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관찰, 발견, 설명의 기본 세 단계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p.302)

나. 펠드만의 미술비평 단계

미술비평은 감상 활동 중 하나의 과정이며 수단이 된다.(박휘락,2003,p.55) 특히 학교 교육에서의 미술비평은 감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때문에 펠드만의 미술비평 단계를 감상지도 모형 중 하나로 살펴보겠다.

펠드만(Feldman, 1967)은 미술비평의 지도를 서술, 분석, 해석, 평가의 네 단계로 형식화하였다. 이 미술비평 단계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적용되고 활용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펠드만은 작가들이 작품을 창조할 때 미리 머릿속에 작품을 완성하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창조하기 위한 처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여 점차 수정하고 보완하며 그림을 완성한다고 보았다. 예술작품이 처음의 아이디어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완성되는 것처럼 미술비평도 마찬가지로 일련의 단계가 있다고 보았다. 펠드만의 비평 4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 III-2> 펠드만의 미술비평 단계

| | |
|----|--|
| 서술 | - 객관적으로 시각적 특징을 서술 - 목록 만들기 |
| 분석 | - 조형요소와 구성요소의 특징 분석 - 서술한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
| 해석 | - 작가의 의도와 작품에 대한 느낌 생각 - 작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 찾기 |
| 평가 | - 작가,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연결 -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당화 |

1) 서술

서술의 단계에서 감상자는 작품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자세하게 서술한다. 작품을 형성하는 시각적 구성요소들을 성실히 눈으로 '읽도록' 하는 것

이다. 서술할 때에는 감상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한다. 작품의 제목, 연도, 작가, 재료 등에 대해서 묘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록을 만드는데 목록을 만드는 이유는 첫째, 작품의 시각적인 요소들의 특징을 빠짐없이 관찰하기 위함이다. 둘째, 서술하는 시각적인 요소들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고 가치 판단을 뒤로 미루기 위함이다. 서술의 단계에서 가치를 포함한다면 마지막 평가의 단계에서 감상자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서술이 되므로 객관적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2) 분석

분석은 전 단계인 서술의 한 형태이지만 서술이 작품의 주제나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라면 이 단계에서는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선, 형, 색과 같은 조형의 요소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구성요소의 특징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즉, 서술했던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분석을 통해 다음 단계인 해석과 평가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한다. 이렇게 형식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분석은 감상자의 시각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

3) 해석

해석의 단계에서는 서술과 분석의 단계에서 관찰한 것들을 종합하여 작품의 의미를 내려 보는 과정이다. 펠드만은 이 단계가 다른 단계보다 어렵고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시각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작가의 의도와 작품에 대한 느낌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는 작품을 창조한 작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작품의 의미가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내재적 미학에 근거하고 있는 관점이다. 감상자의 지적능력과 감각을 활용하여 미술 용어를 선택하며 감상자의 표현이 그 작품의 특징을 요약하고 개별적인 장점을 통합하여 서술하는지가 중요하다.

4) 평가

평가의 단계는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당화하는 단계이다. 평가의 목적은 어떤 작품이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작품과 유사한 유형을 구분해내거나 그 작품이 다른 유사 작품과 구분되어질만한 독특한 특질을 지니고 있는지, 작품 제작의 욕구나 견해를 알아보는 단계이다. 앞선 단계를 거치며 작품의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지막 단계인 것이

다. 그리고 미술작품이 가지고 있는 양식과 특징, 형식요소들을 작품의 작가와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 지어 내면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펠드만은 예술작품의 탁월성을 평가할 때 비평의 기준을 세 가지 관점으로 보았다. 형식주의, 표현주의, 도구주의이다. ‘형식주의’는 작품의 시각적 요소들의 상호관계가 잘 이루어져있는지 작품의 형식적 조직을 근거로 판단한다. ‘표현주의’는 예술적 탁월성이 작품에서 이념이나 감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구주의’는 예술작품이 예술적 가치 그 외에도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심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도구라고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근거로 한다. 앞서 살펴본 펠드만 비평 네 단계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박휘락, 2003, p.212)

류재만(2000)은 펠드만의 미술비평 단계가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지만 아동의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재해석하여 구성한 미술 비평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서술의 단계는 본 것을 자세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단계로, 펠드만은 이 단계에서 객관적인 서술만을 요구하지만 아동의 느낌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허용해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둘째, 분석의 단계에서는 아동 수준에 맞는 대상의 크기, 색상, 형태, 질감, 공간과 부피의 관계 등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제작 기법과 재료, 도구에 관한 것은 원래 펠드만의 비평단계에서 서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류재만은 분석단계로 옮겨 제시하였다. 작품의 재료나 도구와 같은 것이 아동들에게는 분석해 알아내는 단계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셋째 해석의 단계에서 자신의 느낌을 기술하고 작가의 표현 의도, 주제를 읽어내는 것이다. 넷째, 평가의 단계에서 아동 나름대로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아동들에게 꼭 네 단계의 비평 단계를 강조하기보다는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고 있다.(pp.113-114)

게이츠겔(Gaitskell, 1982)은 펠드만의 네 단계에서 각각 초등학교 아동 수준의 질문을 제시하여 간단하게 나타내었다. 서술단계에서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분석의 단계에서는 “물건들은 화면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해석의 단계에서는 “미술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평가의 단계에서는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의 질문을 제시하며 작품을 좋아하는지, 즉 가치의 선택과 평가의 단계를 도입하였다.(박휘락, 2003, p.214에서 재인용)

다. 문화 맥락적 미술비평 단계

고은실(2008)은 앞선 펠드만의 단계가 형식주의적 모더니즘에 기반을 둔 비평 단계라고 보았다. 펠드만의 단계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개인과 타인, 사회의 상황과 문제를 작품에서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문화 맥락적 미술비평교육의 네 단계를 제시하였다.(pp.88-89)

<표 III-3> 문화 맥락적 미술비평 단계

| | |
|-------|--|
| 반응·인상 | - 작품의 첫인상, 느낌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을 서술 |
| 서술·묘사 | - 조형요소와 원리, 구조 등 형식과 양식 탐색 - 작품의 문맥적 조사 |
| 해석 | - 작품의 의미에 대해 해석 |
| 평가·판단 | - 작품의 가치와 자신의 감상경험 토론 - 최종적 가치 판단 |

1) 반응·인상(Reaction)

예술작품을 처음 마주하였을 때의 첫인상과 느낌, 무엇이 연상되는지 말해보는 단계이다. 바로 생각나는 것을 응답하는 반사적인 반응이다.

2) 서술·묘사(Description)

작품의 형식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단계이다. 조형요소와 원리, 구조 등 형식과 양식을 탐색한다. 또 문맥적 조사(Contextual Examination)를 통해 작품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고 작품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역할, 작가의 제작동

기 등을 조사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3) 해석(Interpretation)

작품의 의미에 대해 해석하는 단계이다. 이는 미술비평에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작품이 작가와 그 사회에 대해 갖는 의미를 추측해본다.

4) 평가·판단(Evaluation)

작품의 가치에 대해 토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감상, 비평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작품의 최종적인 가치를 판단한다.

문화 맥락적 미술비평 단계는 이전의 형식주의적 미술 감상 교육이 간과했던 작품의 맥락 조사 단계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은실, 2008, pp.88-89)

라. 대화중심 감상법

펠드만은 비평과 감상이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감상은 교사의 지도 속에서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지식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원미은, 임부연, 2015, p.93) 아레나스(Arenas)는 감상지도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대화 중심의 감상법을 제시하였다. 학습자가 작품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감상법으로 교사가 감상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작품의 지식을 구성해나간다. 이는 감상자 중심의 감상법이며 펠드만의 감상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펠드만의 감상방법이 단계에 따라 교사의 발문, 학습자의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지식 위주의 감상학습이었다면 아레나스의 대화중심 감상법은 대화의 역동성과 연결성, 학습자의 역할을 고려한 감상지도 방법이다.(원미은, 임부연, 2015, p.101)

박휘락(2003)은 아레나스의 대화중심 감상이론을 수업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교사의 발문이 대화를 촉진시키는 세 가지 기본 요소 수용, 교류,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p.147) 또한 교사가 학습자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 가지 형태의 열린 질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정형화된 순서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화하는 대화의 과정이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대화중심 감상법

| | |
|----------------------|-------------------------------------|
| 작품을 관찰하도록 돕는 질문 | - 이것은 무엇일까?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
| 학습자 대답의 근거를 묻는 질문 | -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니? - 왜 그렇게 생각하니? |
| 작품의 관찰과 해석을 확장시키는 질문 | - 그 밖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니? |

주. 출처 **초등학교 미술 감상수업에서 대화주의 탐색**(p.102), 원미은, 임부연, 미술교육논총 제 29권 2호, 2015

1) 작품을 관찰하도록 돕는 질문

작품을 관찰하도록 돕는 질문에서는 교사가 먼저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 작품을 잘 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질문으로는 “이것은 무엇일까?”, “작품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을까?”가 있다.

2) 학습자 대답의 근거를 묻는 질문

학습자가 작품을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말했을 때 그에 대한 근거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물을 수 있다.

3) 작품의 관찰과 해석을 확장시키는 질문

학습자의 대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화를 통해 생각을 교류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나 느낌으로 확장해가는 질문을 한다. “그 밖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니?”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아레나스는 기존의 감상방법이 작가가 미술 작품에 담은 의미와 이론을 찾아 읽어내는 것에 치우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감상수업을 할 때 기초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반응과 주관적인 감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종래에는 작품에 숨겨진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를 지적한다. 작품의 가치는 감상자와 작품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기는

것이다. 즉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그 안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감상자가 감상활동을 하는 행위를 통해 생성된다. 이러한 관점은 감상자의 해석과 판단이 작가의 의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대화중심 감상법의 이러한 작품관은 학습자가 작품을 자유롭게 관찰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고, 또 그 근거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며 대화하는 감상교육을 지향하는 것과 맞닿아있다.(박휘락, 2003, pp.155-156)

마. 귀납적 사고법

귀납적 사고법은 2015개정 미술과 초등 지도서에서 소개하는 미술교수학습모형 중에 감상영역과 관련 있는 교수학습 모형 중 하나이다. 귀납법은 각각의 사실로부터 규칙성을 발견해내는 사고법이다. 미술과의 귀납적 사고법 모형은 감상 영역의 미적 인식능력을 기르기 위한 모형으로 지식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사고력 계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변의 자연환경과 시각 문화 환경, 미술 작품에서 미적 사고를 형성하고 미적 원리나 특징을 추론하는 절차를 거친다.(미술지도서총론, 지학사, p.14)

<표 III-5> 귀납적 사고법

| | |
|---------|---|
| 문제 인식 | - 적절한 자료를 통해 문제를 파악 |
| 관계 탐색 | - 자료를 탐색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 - 자신이 탐색한 것을 다른 학습자와 비교하며 정교화 |
| 개념 발견 | - 탐색한 것 사이의 상호 관계를 찾아 규칙성 발견 - 개념에 대한 용어 정의 |
| 개념 적용 | - 형성된 개념을 실생활, 표현활동 등에 적용 |
| 정리 및 발견 | - 학습한 내용을 삶에 응용 |

1) 문제 인식

교사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탐구하는 단계이다. 교사가 준비하는 자료는 학습할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와 학습자의 기존 사고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2) 관계 탐색

앞 단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를 탐색하는 단계이다. 다양한 관찰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제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하며 자신이 찾은 의미와 언어를 다른 학습자와 대비시켜 정교화 하도록 한다.

3) 개념 발견

탐색한 사실을 근거로 상호 관계를 찾아 작품 특성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개념은 언어를 통해 형성되므로 미술 용어의 정의를 통해 추상 개념을 언어화하도록 한다.

4) 개념 적용

형성된 개념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확장하는 단계이다. 통합학습의 관점에서, 형성된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내면화하거나 표현활동에 적용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5) 정리 및 발견

학습 과정에서 반성 단계이다. 학습한 개념에 대해 학습자의 이해력을 높이고 학습자의 삶에 의미 있도록 응용하는 단계이다.

바. 반응중심 학습법

귀납적 사고법과 같이 미술과 초등지도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교수 모형으로 반응 중심 학습법은 미적 체험이나 감상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모형이다. 작품의 현상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반응을 명료화하고 반응에 따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도록 지도한다.(미술지도서총론, 지학사, p.15)

<표 III-6> 반응중심 학습법

| | |
|----------------|--|
| 반응 형성 | - 대상을 보고 반응을 형성함 |
| 반응 명료화 | - 질문, 토의, 반성을 통해 자신의 반응 명료화 |
| 반응 심화 | - 작품 탐색 - 작품의 배경과 맥락 탐구 - 표현활동과 연계하여 반응 심화 |
| 정리 및 발전 | - 자신의 반응에 대한 의미와 가치 부여 - 내면화 과정 |

1) 반응 형성

학습자는 시각적 대상이나 현상을 탐색하며, 교사는 학습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자극하여 반응 형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2) 반응 명료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질문과 토의, 반성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 정한 반응을 명료화한다.

3) 반응 심화

관련된 다른 작품을 탐색하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다시 파악하는 단계이다. 작품을 시대 상황이나 작가와 연결 지어 파악한다. 또한 표현활동과 연계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반응을 심화한다.

4) 정리 및 발전

반응의 내면화 단계이다. 학습자의 미술적인 반응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로 체험의 확대와 심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2. 감상지도 모형 비교

앞서 여러 학자들과 미술지도서의 감상지도 모형 절차와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섯 가지의 감상지도 모형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의 <표 III-7>과 같다.

<표 III-7> 감상지도 모형 비교

| 매디저 감상과정 | 펠드만 미술비평 | 문화맥락적 미술비평 | 대화중심 감상법 | 귀납적사고법 | 반응중심 학습법 |
|-------------|-------------|---------------|--------------|--------|-------------|
| 관찰 | 서술 | 반응·인상 | 관찰을 위한 질문 | 문제 인식 | 반응 형성 |
| 진술 | 분석 | 서술·묘사 | 근거를 묻는 질문 | 관계 탐색 | 반응 명료화 |
| 선택 | 해석 | 해석 | 확장하는 질문 | 개념 발견 | 반응 심화 |
| 일반화 | 평가 | 평가, 판단 | | 개념 적용 | 정리 및 발전 |
| 정리 및 발견 | | | | | |

고은실(2008)은 과거의 감상이론이 형식주의의 모더니즘 관점으로 행해지는 감상교육임을 밝히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비서구권 나라들의 사회·정치·문화적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원적 가치를 지닌 현대 미술과 미술계를 아우르기에 부족하다.(p.87) 또한 박휘락(2003)은 기존의 감상교육이 작가, 작품, 감상자 세 요소 중에서도 ‘작가’와 ‘작품’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며 감상이론은 현대 사회를 반영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스트모더니즘, 해석학, 현상학 등의 관점에 의해 그 중점이 ‘작품’과 ‘감상자’로 옮겨지고 있다.(p.67)

따라서 현대 사회와 감상 교육 변화의 담론 아래, 위의 감상지도 모형을 세 가지 비교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교 관점 세 가지 중 첫째는 개인적 반

응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의 여부이다. 감상활동은 작가, 작품, 감상자의 세 요소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감상교육의 초점이 작품과 감상자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감상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작품의 의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가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의미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감상자의 주체적인 감상은, 특히 초등 감상자에게 더욱 유연함과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다. 감상자의 개인적 반응과 경험을 수용하는 감상교육은 더 이상 감상교육을 이론중심의 권위주의적인 감상교육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매디저의 감상과정과 펠드만의 미술비평단계, 귀납적 사고법은 개인적 반응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작품의 사실적인 형식과 요소의 원리, 특질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매디저 감상과정에서 관찰의 단계, 펠드만 미술비평의 서술, 분석의 단계가 그러하다. 귀납적 사고법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감상자의 반응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감상자가 찾은 의미를 다른 학습자와 대비시켜 비교하고 정교화 하도록 한다. 문화맥락적 미술비평의 단계와 대화중심 감상법, 반응중심 학습법은 이와는 반대로 감상자 개인의 반응을 고려한 감상 모형이다. 문화맥락적 미술비평은 작품의 조형요소와 원리, 구조, 형식들을 서술하고 묘사하여 의미를 찾도록 하지만 첫 단계에 감상자의 직관적인 반응과 인상을 고려하였다. 대화중심 감상법은 작품의 가치는 다원적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상자의 반응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감상자 중심의 감상법이다. 반응중심 학습법 역시 질문, 토의, 반성 등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반응을 명료화하고 자신의 반응에 대한 의미를 정리해보는 과정이 포함되어있다.

두 번째 비교 관점은 예술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즉 맥락적 요소를 고려하는지의 여부이다. 예술작품을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구조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작품이 가진 수많은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맥락과 작가와의 배경들과의 상호작용적인 의미가 있다. 매디저의 감상과정과 펠드만의 미술비평 단계는 작품의 맥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밝힌 이러한 형식주의적 모더니즘 관점은 다원적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대화중심 감상법은 작품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지만 교사가 작품의 정보를 먼저 알

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상자의 감상능력과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이 낮거나 없을수록 작품의 맥락적 요소를 고려하기 어렵다. 귀납적 사고법과 반응중심 학습법은 교사의 수업 내용 구성에 따라 작품의 배경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 감상의 과정에 맥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 비교 관점은 그 단계와 절차가 형식적인가 순환적인가의 여부이다. 대부분의 감상모형은 일련의 절차를 가진 일방향성의 단계를 정하여 제시하였다. 김정애(2002)는 이러한 방법은 학습자의 미적 지각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해석과 판단의 과정이 필요한 형식주의 미학이론에는 어울리는 형식이지만 학습자의 탐색능력과 판단 방식에 대한 능력은 감소시킨다고 밝혔다.(p.15) 매디저의 감상과정과 펠드만의 미술비평단계, 문화맥락적 미술비평단계, 귀납적 사고법, 반응중심 학습법의 대부분 감상지도 모형이 일방향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대화중심 감상법만 순환하는 양방향적인 질문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으로는 교수-학습의 과정으로서 순차성과 절차성이 있는 전개방법이 실제 수업에 용이하게 도입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박휘락, 2003, p.210) 따라서 절대적인 형식을 지켜야 하는 감상지도 모형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상지도 모형의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학습자와 교사가 감상의 상황에 맞게 가변 가능한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점은 <표 II-2>에서 감상의 공통요소를 추출하였는데 감상지도 모형에 감상태도와 소통의 측면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과정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귀납적 감상법과 반응중심 학습법에서 미술의 표현 영역과 통합한 감상이 이루어지고 이는 확장되어 타 교과,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통합이 이루어져 감상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또한 대화중심 감상법과 반응중심 학습법에서는 타자와의 질문, 토의 등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통을 통한 감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상자가 주체가 되는 감상, 작품의 맥락적 배경이 고려되는 감상, 형식적 절차보다 유연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감상, 미술의 경계를 확장하여 다양한 영역과 통합한 감상, 서로 소통하며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감상지도는 미술교육 흐름의 변화와 더불어 현대미술의 특징과 맞닿아있다. 또한 감상지도 모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회의 변화에 맞는 감상지도 모형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IV. 현대 미술 감상모형 개발

초등 감상 발달 단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현대 미술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감상 지도 모형 중에서도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학습자의 생활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양식으로 학습자들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현대 미술을 위한 감상 지도 모형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현대 미술의 넓은 개념에서 현대 미술 용어의 의미를 제한하여 밝히고 현대미술의 특징을 고려한 현대미술 감상 모형을 개발하도록 하겠다.

1. 현대미술의 정의

가. 용어의 정리

현대미술은 보통 modern과 contemporary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모던아트(modern art)와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modern은 ‘현대의, 근대의’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모던아트는 넓은 의미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생겨난 미술의 경향을 통틀어 일컫는다. 그러나 modern에서 파생된 단어 모더니즘(modernism)은 동시대 미술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아서 단토(Arthur C. Danto, 2004)는 모더니즘이 1860년부터 1880년대까지 번성했던 양식이라고 정의하며 모더니즘과 동시대 미술의 구분은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라고 보았다.(p.43) 모더니즘은 그 시대의 서사 속에서 단선적인 ‘진보’를 위해 나아가는 경향성을 띤다. 인상주의에서 입체주의로, 추상표현주의로 나아가는 단일한 방향성을 지닌 것이다. 모더니즘은 ‘새로움’을 위해 과거와 결별하고 다음 단계의 서사로 넘어가는 흐름을 따른다.(Arthur C. Danto, 1997; 진중권, 2018, p.32에서 재인용)

모더니즘이 그 시대 예술적 흐름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시대 미술은 어떤 특정 시기의 예술적 경향을 하나로 묶어 설명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어떤 한 양식이나 사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양식, 현 시대인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미술이 동시대미술이다.(성민우, 2009, p.177)

contemporary의 어원을 살펴보면 같은(con-) 시대의(temporary)라는 뜻으로 ‘현대, 당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이후 미술은 작품의 주제와 형식을 다양한 형태로 시도하며 미술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적인 취향의 다양한 장르를 지닌 문화이며 동시에 지구촌 문화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으며 하나의 통일된 양식이나 사조로 묶어 설명할 수 없으나 그 중심점에는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현대미술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다문화와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면 모던 아트는 이와 구분된다.(박정애, 2001, pp.35-36)

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현대미술

초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의 현대미술은 모더니즘 미술과 동시대 미술을 넓은 범위에서 함께 다룸으로써 그 차이가 불분명하다.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속에서의 현대미술은 감상영역 성취기준 속에서 그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 미술의 특징을 현대미술과 비교할 수 있다.’라는 5-6학년군 성취기준은 미술 작품이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p.378) 여기에서 사용된 현대 미술의 용어는 전통미술과 대치되는 의미로 단순히 현대라는 특정 시간의 시기를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미술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시대적 요구를 파악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현대의 문화 예술 현상과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시각문화 미술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김성숙 등, 2018, p.21-24) 다문화 미술교육, 시각문화미술교육, 융합인재교육, 환경생태미술교육, 공동체중심 미술교육을 최근 미술 교육의 중심개념으로 제시하여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중심개념은 포스트모던 철학의 다원론과 타문화에 대한 관심,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 현 시대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미술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dern의 의미를 한정짓고 comtemporary와 구분하기 위해 모던아트를 개념상 근대미술의 의미로 제한한다. 모더니즘과 근대 미술(modern art)은 예술에서의 형식과 작가의 독창성을 중시하며 심미적인 예술을 강조한다. 이와 구분하여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이후의 미술은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greenberg, 1961; 고은실, 2008, p.90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현대 미술의 의미를 포스트모더니즘 등장 이후의 컨템퍼러리 아트의 의미임을 밝힌다.

2. 현대미술의 특징

전통적인 의미의 미술 영역에 포함된 회화, 조각, 건축 등은 18세기부터 미술이라는 용어로 범주화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미술이 하나의 교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1820~1830년대이다. 19세기 이전의 미술교육은 제작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후 1850년대까지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이 발달하자 생산기술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19세기 말에는 미술의 문화적인 면을 강조하는 지식으로서의 미술교육이 중심이 되었으며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의무교육제도 보급과 아동심리학의 발전에 힘입어 아동 중심의 아동 창의적 표현을 중시하는 미술교육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다른 교과와의 연결과 통합적 접근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광범위한 미학적 고찰을 중시하는 미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1997; 전성수, 2004, p.160에서 재인용)

학교에서는 여러 교과 중 하나의 과목으로 ‘미술(ar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18세기의 미의 기준과 현대미술에서의 미의 기준은 다르다. 현대미술에서는 아름다움을 추(醜)로 왜곡하고 파괴하기도 하는데, 이를 전통적인 미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미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 따라 현대미술은 미술의 내용과 형식, 범위와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 (김정희, 2004, p.219)

미술의 이러한 변화는 미술 교과에서도 내용구성에 반영되어 새롭게 소개되고 있다. 이은적(2007)은 현대미술의 현상을 미술 사조와 형식, 개념을 바탕으로 구

분하였다. 미술 교과에서 교육해야 할 현대미술의 내용을 움직임의 표현, 대중 이미지의 차용, 현실의 직접적인 제시, 설치미술, 환경미술, 개념미술, 행위예술. 전자시대의 예술, 구상회화로의 복귀, 포스트모더니즘의 10가지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p.87-107) 현대미술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새롭게 확대된 미술교육의 변화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

<표 IV-1> 현대 미술의 교육내용

| 구분 | 미술사조, 형식, 개념 |
|-------------|--|
| 움직임의 표현 | 미래주의, 옵아트, 키네틱 아트 |
| 대중 이미지의 차용 | 만화, 광고, 대중에게 친근한 소재 등을 작품으로 제시하는 팝아트 |
| 현실의 직접적인 제시 | 오브제, 누보레알리즘(신사실주의) |
| 설치미술 | 미술사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양식이 아니라 공간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특성을 가진 미술 |
| 환경미술 | 인간을 포함한 총체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
| 개념미술 | 아이디어와 과정이 예술이 되는 보이지 않는 시각예술 |
| 행위예술 | 신체를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하는 예술 행위. 미술을 사치품이 아니라 시각적 소통의 수단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함. |
| 전자시대의 예술 | 테크놀로지 아트, 전자예술, 미디어아트로 칭하며 그 중 비디오 아트, 컴퓨터 아트가 대표적 |
| 구상회화로의 복귀 | 1960-70년대 중반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구상 미술이 등장함. |
| 포스트모더니즘 | 보편성을 부인하고 다원성, 다양성, 절충주의로 나타내게 되는 수평적인 다양성 |

주. 출처 초,중,고 미술교과서를 위한 현대미술 교육내용 개발과 체계화 연구, 이은적, 2007

여러 매체의 증가와 다양한 미술 형식의 시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변화한 현대 미술은 시대적 흐름과 전반적인 사회 변화에 따라 확장되었다. 현대미술을 공통된 양식이나 특징으로 묶어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미술의 패러다임 변화를 바탕으로 기존의 전통적 미술과 비교했을 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는 감상교육에서도 전통미술 감상교육과 현대미술 감상교육을 다르게 시도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미술의 특징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아이디어와 과정 중시

전통적인 미술작품은 예술가에 의해 제작된 작품 자체를 보고 가치를 매겼다. 즉 예술가의 행위로 인한 결과인 미술작품을 감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현대미술 작품의 형식이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미술작품과 크게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기성품을 예술작품의 한 형태로 제시한 오브제는 예술가의 창작 의도와 제작 과정의 아이디어가 미술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뒤샹(Duchamp)의 <샘(Fountain), 1917>이나 피카소(Picasso)의 <황소 머리, 1942>는 이미 만들어진 사물을 ‘선택’하는 작가의 아이디어가 미술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작품이다. 미술작품의 본질이 작품의 유일성이나 독창성, 뛰어난 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아이디어가 본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진영은, 강성우, 2007, p.28)



[그림 IV-1] 샘, 마르셀 뒤샹, 1917



[그림 IV-2] 황소머리, 파블로 피카소, 1942

작가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는 현대미술의 특징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개념미술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언어적인 의미나 제작이념을 중시하며 작가의 사고 자체가 전면에 나타난다. 개념미술에서는 만들어진 물질적 대상물로서의 작품보다 그것을 위한 의도로서의 아이디어와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비물질화로서의 시도가 주된 특징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개념미술의 작가 코스투스(Kosuth)는 예술작품이 분석적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Arthur C. Danto, 1964; 이민정, 2008 p.22에서 재인용) 코스투스의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1; One and three Chairs1, 1965>는 의자를 대상으로 한 사진, 의자의 실물, 의자의 사전적 정의를 쓴 종이를 함께 제시한다.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의자’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문자나 이미지로 이루어진 소통의 수단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생각하도록 한다. 이렇게 미술에 대한 개념적인 의문과 사고과정이 현대미술의 한 특징이 된다.



[그림 IV-3]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 조셉 코스투스, 1965

나. 일상적 체험과 소통

오늘날 현대미술은 대중들의 삶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 팝아트는 대량생산과 소비가 만연하는 사회에 다양한 매체와 광고 등에 나타나는 시각 이미지들을 미술의 영역으로 수용하였다. 앤디워홀(Andy Warhol)의 <캠벨 수프; Campbell's soup cans, 1962>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통조림을 대상으로 삼아 작품을 생산하였다. 올덴버그(Oldenburger)의 <스푼 브릿지와 체리; Spoon Bridge and Cherry, 1988>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숟가락과 체리를 일상적이지 않은 크기로 확대하여 예술작품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소재나 만화, 광고를 미술작품으로 제시하는 팝아트는 일상적이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 이는 현대미술의 일상성, 직접성이라는 특징을 반영한다. 과거 전통적인 의미의 미술이 특정 계층을 위한 미술이라면, 현대미술은 대중들의 삶 어디에서나 익숙하게 접할 수 있다.



[그림 IV-4] 캠벨수프 캔, 앤디워홀, 1962 [그림 IV-5] 스푼브릿지와 체리, 올덴버그, 1988

한편, 고은실(2008)은 현대미술에서의 미술작품이 관객 나름의 이해와 해석을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현대의 예술가들은 예술과 삶, 작가와 관객의 밀접한 교섭을 시도하며 미술의 기능을 ‘인간의 삶을 위한 미술

작품'으로 보고 있다.(p.92) 현대미술에서는 작품과 감상자 사이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최문선(2014)은 1960년대 이후 전자매체가 발달하면서 미술의 상호작용적 소통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하였다.(p.9)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일어난 전위예술 운동인 플럭서스(Fluxus)는 시간과 공간을 예술의 소재로 포함 시켜 예술과 감상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연성과 동시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해프닝과 퍼포먼스를 포함한 행위예술 등에서 감상자의 체험과 소통이 중요해졌다. 요셉보이스(Joseph Beuys)는 <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것인가, 1965>에서 죽은 토끼에게 그림을 설명하는 행위를 예술로 표현하였다. 관객은 이 과정을 관찰하며 더 가깝게 체험하게 되고 예술가와 소통하며 나름의 의미를 예술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는 과거와 다르게 현대미술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감상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미술은 감상자와 작품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 행위를 창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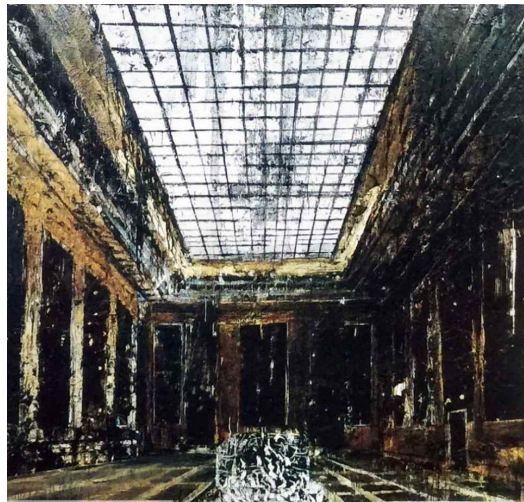


[그림 IV-6] 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것인가, 요셉 보이스, 1965

다. 다양성과 다원성

현대미술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성과 다원성에 있다. 한 시대가 하나의 미술 양식으로 대표되는 종래의 사고방식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이르러 거부되었다.(김옥동, 1990, p.14) 현대미술은 여러 문화권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공존한다. 성민우(2009) 또한 다양성과 다원성을 현대미술의 특성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성은 사람들 사이의 언어, 의상, 전통 등의 문화적 차이를 의미하며 다원성은 다양한 문화가 각자 독자적 가치를 지녔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p.182-183)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나타나는 다원주의는 일반적으로 1960~70년대에 나타난 이질적인 동향들을 특징짓는 말로 흑인 민권운동,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이는 현대미술에서 페미니스트 미술, 낙서화, 신표현주의, 뉴페인팅 등 과거의 획일성과 보편성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를 인정한다. (이은적, 2007, p.104)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는 독일의 신표현주의 작가로 어두웠던 과거를 딛고 자국의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였다. 키퍼의 작품 <내부, 1981>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회화의 양식에 유리나 짚, 식물 등을 재료로 사용하였다.(진중권, p.292)



[그림 IV-7] 내부, 안젤름 키퍼, 1981

한편 현대미술에서 드러나는 다양성과 다원성은 제작 방식이나 기법, 재료와 매체의 선택에서도 나타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각종 테크놀로지는 다양성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과 함께 새로움을 추구하는 매체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사진기의 발명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대상을 재현(representation)함에 있어 회화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히려 지금은 재현과는 무관한 용도로 팝아트나 개념미술에서 효과적인 표현 매체로 사용된다. 더불어, 미디어 아트는 현시대의 중요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것으로, 책이나 잡지, 신문,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등 대중에게 파급효과가 큰 의사소통 수단의 형태를 빌려 제작된다. (진영은, 강성원, 2007, pp.31-32)

또, 이와는 다르게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등장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미술은 미술의 재료로 거대한 자연을 이용하여 포장하거나 담을 쌓거나 방과제를 조성하여 미술작품을 제작하였다.(정병관 외, 1994; p.32에서 재인용) 앤디 골즈워시(Andy Goldsworthy)의 <깨진 자갈들, 1985>도 자연의 재료를 활용한 작품 중 하나이다. 이처럼 현대 미술가들은 미술의 매체를 한정 짓지 않고 무한한 범위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방법도 다양하게 활용한다.



[그림 IV-8] 깨진 자갈들, 앤디 골즈워시, 1985

라. 해체와 확장

현대미술은 앞서 보았듯 다양성과 다원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전개되고 있으며 하나의 규칙이나 준거로 평가할 수 없게 되었다. 미술의 장르와 장르 사이의 경계가 해체되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발산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대미술에서의 해체와 확장은 미술 내부의 변화와 외부의 변화 모두를 포함한다. 미술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장르 특성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미술 영역과 타 영역이 융합하며 확장되어 가는 변화이다.

미술 내부에서는 장르와 영역의 구분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미술은 회화, 조각 등의 분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 비디오, 사진, 북디자인 등 주변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자벨 드 메종 루주, 2007; 성민우, 2009, p.184에서 재인용)



[그림 IV-9] 다다익선, 백남준, 1988

카프로(Kaprow, 1961)는 해프닝을 통해 전통적인 회화의 형식을 해체하고 확장하였다. 전통적인 미술은 순수 시각 형태로 존재하지만 카프로는 시각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감각으로 미술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시각과 더불어 소리, 행위, 사람, 촉감, 냄새 등 다양한 것들이 현대미술의 독특한 재료가 될 수 있다. 또한 해프닝을 통해 삶과 예술의 경계를 없앴다. 전통회화에서의 작품은 프레임 안에 있고, 관람자는 그 너머의 현실세계에 존재하지만 현대미술은 예술가와 관람자가 존재하는 세계가 다르지 않다. (알렌 카프로, 1961; 진중권, 2013, pp.223-226에서 재인용) 또한 현대미술은 미술 내부 장르 외의 음악, 건축, 연극 등 다른 영역과 상호교류하며 장르를 확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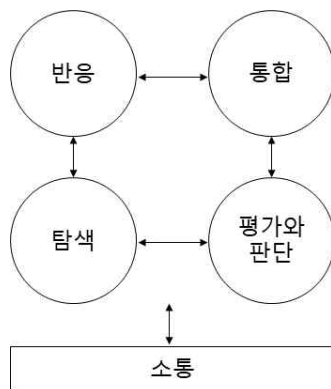
[그림 IV-10] 유체, 앨런 카프로, 1959

3. 현대미술 감상지도 모형

고전 미술과는 다르게 현대미술은 아이디어와 과정을 중시하며,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소통하기 쉽다. 다양성과 다원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장르나 형식을 해체하고 삶으로 확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미술의 감상 지도 또한 현대미술의 특징에 맞는 요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상적으로 체험하기 쉬운 현대미술을 학생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미술 재료와 형식의 특성을 탐색할 수 있는 발문이 필요하다.

앞서 감상 지도 모형을 탐색하고 비교하여 감상의 공통 구성요소를 추려보았다.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미적 요소의 관찰과 분석, 미술가·미술사·작품의 배경, 감상태도, 소통과 공유이다. 또한 세 가지 비교 관점을 통해 감상자의 개인적인 반응과 경험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작품의 맥락적 배경이 고려되는지, 형식적 절차보다 유연한 분위기에서 감상을 할 수 있는지, 미술의 경계를 확장하여 다양한 영역과 통합하고 서로 소통하며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기존의 감상지도 모형과 현대미술의 특징을 종합하여 현대미술 감상지도 모형의 단계를 반응, 탐색, 평가와 판단, 통합, 소통으로 제안한다. 각각의 단계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반응, 탐색, 평가와 판단, 통합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그림 IV-11] 현대미술 감상지도 모형의 단계

가. 현대 미술 감상지도 모형의 단계

1) 반응

반응의 단계는 학생이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적인 경험을 작품과 연결 지어 생각하도록 발문을 할 수 있다. 이 단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일상 속에 현대미술이 가까이 있음을 체험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와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반응 단계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가) 발문의 예

- 이 작품을 보고 생각나는 나만의 경험이 있나요?
- 주변에서 이 작품이나 비슷한 작품을 본 적이 있나요?
- 어떤 마음/감정이 떠오르나요?
- 작품과 관련된 친구의 경험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있나요?

나) 활동의 예

- 작품에 대한 첫 인상을 표정이나 몸으로 표현하기
- 작품을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발표하기
- 간단한 그림이나 문장, 선을 등으로 나타내기

2) 탐색

탐색의 단계에서는 미적 요소의 관찰과 분석, 미술가·미술사·작품의 배경 등을 탐색한다. 교사는 이 단계에서 현대미술의 다양한 형식과 특성에 대한 발문과 작품의 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발문을 한다. 또한 초등학생의 특성상 작품의 미술가, 미술사, 배경 등 광범위한 감상의 범위에서 중점으로 감상할 내용을 재구성하여 발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활동에 따라 개인, 모둠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가) 발문의 예

- 이 작품은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까요?
- 어떤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나요?
-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이 작품의 배경/미술가/미술사를 조사해봅시다.

나) 활동의 예

- 작품의 미적요소, 형식에 대해 관찰하고 익히기
- 미술가에 관련된 책 함께 읽기
- 미술사, 작품의 배경에 대해 조사하기

3) 평가와 판단

평가와 판단의 단계에서는 앞선 탐색의 단계에서 관찰하고 조사했던 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주제를 생각해보고 작품에 대한 나름의 평가와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표현하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은 반응 단계에서의 첫인상을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작품의 주제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내리는 평가와 판단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충분히 표현하고 공유하는 수업 분위기가 필요하며 공유를 통해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

가) 발문의 예

-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 작품에서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 친구의 생각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표해봅시다.
-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 활동의 예

-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 ‘작품은 ()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이유 발표하기
- 새로운 제목 짓고 이유 발표하기

4) 통합

통합의 단계는 마무리의 단계로, 학생들의 삶에 통합하는 내면화의 단계이다. 감상의 과정을 통해 느끼고 알게 된 것을 정리하고 더 알고 싶은 것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다. 현대미술을 자신의 일상과 가깝게 느낄 수 있으며 또 다른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단계이다. 또한 미술의 다른 영역인 체험, 표현과 연계하거나, 타과목과 연계하여 내면화를

도울 수 있다.

가) 발문의 예

- 새롭게 알게 된 것과 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작가의 또 다른 작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 작품과 비슷한 재료/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다른 작품을 찾아볼까요?
- 내가 미술작품을 만들 때 사용해보고 싶은 재료, 방법, 주제 등이 있나요?
- 다른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 활동의 예

- 도슨트가 되어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기
- 작품 감상을 통해 알게 된 것 정리하고 더 알고 싶은 것 조사하기
- 표현활동과 연계하여 작품 제작하기

5)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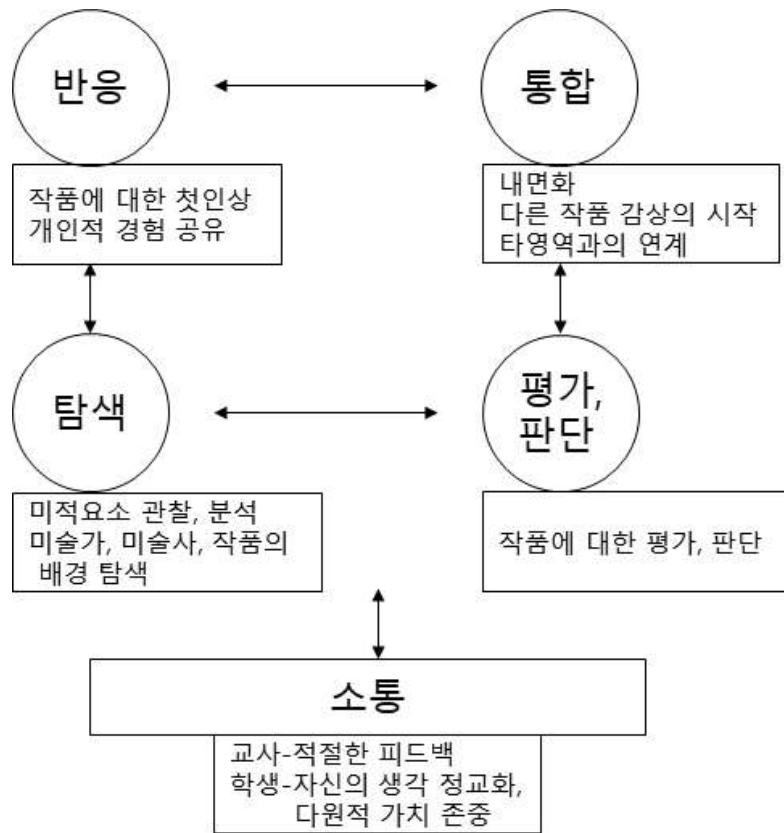
소통은 앞선 네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된다. 반응, 탐색, 평가와 판단, 통합의 과정 전반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소통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의 감상 과정을 알고 수업 구성과 진행, 평가에서 학생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학생은 소통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정교화하며 동료의 다양한 평가와 판단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가) 활동의 예

- 질문하고 답하며 생각 공유하기
- 짝 활동, 모둠활동을 통해 소통하기
- 자신과 친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기
- 알게 된 것 정리하고 발표하기

현대미술 감상 모형의 각 단계는 방향성을 띠는 절차의 단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중 언제라도 탐색에서 다시 반응으로, 평가와 판단에서 다시 탐색으로 돌아가 감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순환적 구조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특성상 학생의 일상과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개인적 경험과 반응을 중시한다.


그리고 작품의 배경을 조사할 수 있는 단계를 통해 맥락적 배경을 알도록 하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내면화한다.




[그림 IV-12] 현대미술 감상지도 모형의 단계 설명

나. 현대 미술 감상지도 모형 수업의 예

1) 3학년 수업의 예

| | | | |
|-------|---|----|--|
| 성취기준 | [4미03-03] 미술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대상 | 3학년 |
| 학습목표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미술작품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다. | | |
| 학습 과정 | 교수·학습 활동(교사◇, 학생◆) | | 자료(★) 및 유의점(※) |
| 반응 | <p>◎ 나의 경험 떠올리기</p> <p>◇ 지금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나의 경험을 말해봅시다.</p>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①  </div> <p style="margin-bottom: 10px;"><왕의 슬픔, 앙리 마티스, 1952></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②  </div> <p style="margin-bottom: 10px;"><알람시계들, 아르망, 1960></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③  </div> <p><깨진 자갈들, 앤디 골즈워시, 1985></p> </div> | | <p>★ 그림 자료</p> <p>①②③④</p> <p>(비상교육 3~4학년 미술 교과서 참고)</p> |

| | | |
|---|--|--|
| | <p>④</p>  <p><거울 여인, 김수자, 2002></p> | |
| <p>◇ ①/②/③/④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나만의 경험이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을 보니 기타를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나요. ◆ ②는 시계 소리가 푹푹푹푹 날 것 같아요.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대면 소리가 나세요. ◆ ③을 보니까 달팽이를 봤던 것이 생각나요. ◆ ④는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싶어요. <p>◇ 주변에서 이 작품과 비슷한 작품을 본적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과 비슷한 작품을 미술관에서 본적 있어요. <p>◇ 오늘은 이 네 가지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해볼 거예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학습목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미술작품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다.</p> </div> <p>◇ 이 작품들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간단하게 표정이나 몸짓으로 나타내고 발표해봅시다. / 왜 그렇게 나타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를 보고 달리는 몸짓) 시계를 보고 약속시간에 늦어서 빨리 달려가야 할 것 같아요. ◆ (③을 보고 빙글빙글 도는 몸짓) 소용돌이 같이 생겨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 | |

| | | |
|-----------|--|---|
| <p>탐색</p> | <p>◎ 작품 들여다보기</p> <p>◇ 작품을 관찰하며 모듈별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히 정리해봅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1. 각각의 작품은 어떤 재료를 사용했나요? 2.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p> </div> <p>◆ (모둠활동의 예시)</p> <p>①은 물감이 아닐까?/ 내 생각엔 색종이로 잘라서 붙인 것 같아./ 색칠한 게 아니라 가위로 자른 것 같지 않니?/ 그리고 색이 진해. 다양한 색을 사용한 것이 알록달록 예쁘게 느껴진다./ 근데 왜 제목이 왕의 슬픔일까? 악기 연주하는 건 즐거워 보이는데./</p> <p>◇ 모듈 친구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어 보았나요? 우리 모듈에서 했던 이야기를 발표해볼까요?</p> <p>◆ ①/②/③/④는 색종이/시계/돌/이불, 거울로 만들었습니다.</p> <p>◆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궁금했습니다.</p> <p>◆ 미술은 물감으로 그리는 것이 많은 줄 알았는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새로웠습니다.</p> | <p>★ 모듈별 그림 자료 ①②③④</p> <p>※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충분히 관찰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p> |
| <p>평가</p> | <p>◎ 마음에 드는 작품 선택하기</p> <p>◇ 네 가지 작품 중에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봅시다. 마음에 드는 작품별로 모듈을 다시 만들겠습니다.</p> <p>◇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랐나요? 나와 생각이 같은 친구들과 작품에 대해 인상 깊었던 점을 공유해봅시다.</p> <p>◆ (모둠활동의 예시)</p> <p>나는 ④에서 사용한 이불이 할머니 집에 있던 이불이 생각나서 제일 마음에 들었어./ 거울을 사용해서 더 많아 보여./ 미술작품에 거울이나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신기했어./</p> | |

| | | |
|-----------|--|-------------------------|
| | <p>◎ 공유하며 생각 비교하기</p> <p>◇ 이제 내가 고른 작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함께 발표해봅시다. 모둠친구들과 정하고 같이 발표하겠습니다.</p> <p>◆(모둠 활동의 예시) 우리 모듬은 ③에서 “깨진 조각들은 (행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돌이 깨졌지만 서로 짝을 이루어 아름답고 부드럽게 놓여있어서 행복할 것 같아서입니다.</p> | <p>★ 모듬별 정리 학습지</p> |
| <p>통합</p> | <p>◎ 나만의 작품 생각해보기</p> <p>◇ 미술작품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재료로 미술작품을 만든다면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p> <p>◆ 저는 교실에 조각나서 버려진 지우개로 탐을 만들어보고 싶어요.</p> <p>◆ 저는 운동장에 있는 나뭇잎으로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p> <p>◇ 다음시간에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미술작품을 직접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시간까지 어떤 재료를 활용할지 생각하고 준비해봅시다.</p> | |

2) 6학년 수업의 예

가) 수업 과정안

| | | | |
|-------|--|--|-----|
| 성취기준 | [6미03-03] 미술 작품의 내용(소재, 주제 등)과 형식(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등)을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대상 | 6학년 |
| 학습목표 | 현대미술 작품을 조사할 수 있다.(1/2) 도슨트가 되어 작품을 소개할 수 있다.(2/2) | | |
| 학습 과정 | 교수·학습 활동(교사◇, 학생◆) | 자료(★) 및 유의점(※) | |
| 반응 | <p>◎ 나의 경험 떠올리기</p> <p>◇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 본적이 있나요? 어떤 경험을 했었나요?</p> <p>◆ □□ 미술관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 직접 그림 그리기 체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p> <p>◆ ○○ 박물관에서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p> <p>◇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전시 작품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 분을 도슨트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미술작품과 미술가를 정해오기로 했었죠?</p> <p>◇ 오늘은 모둠 친구들과 함께 작품과 작가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고 직접 도슨트가 되어 미술작품을 설명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학습목표> 현대미술 작품을 조사하고 도슨트가 되어 작품을 소개할 수 있다.</p> </div> | ※ 생각이 충분히 떠오르도록 친구들과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 |
| 탐색 | <p>◎ 조사할 작품 정하기</p> <p>◇ 우리 모둠에서 조사할 미술작품을 정해봅시다.</p> | | |

| | | |
|----|---|---|
| | <p>◆(모둠활동의 예시)</p> <p>A: 너희들은 어떤 작품을 정했니? 나는 앤디 워홀이라는 미술가의 ‘꽃’을 소개하고 싶어.</p> <p>B: 나는 금붕어가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인데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야.</p> <p>C: 어떤 작품을 같이 조사하면 좋을까? 나는 금붕어가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도 좋지만 그림을 보니까 ‘꽃’을 어떻게 그렸는지 조사해보고 싶어.</p> <p>B: 그래 좋아.</p> <p>◎ 인터넷으로 조사하며 탐색하기</p> <p>◇ 선생님이 주는 학습지와 질문을 보며 작품과 미술가를 조사해봅시다.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조사해봅시다.</p> <p>◆(조사할 내용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작품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 미술가는 누구인가요? - 언제 제작된 작품인가요? -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어떤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했나요? - 이 작품의 배경은? | <p>※ 모둠별로 활동을 진행하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습지는 개인별로 주어 스스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 <p>★ 개인별 작품 탐색 학습지</p> |
| 평가 | <p>◎ 인터넷으로 조사한 내용 정리하기</p> <p>◇ 조사하며 궁금하거나 더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친구들과 의논하며 추가해봅시다.</p> <p>◆(정리할 내용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 <p>★ 개인별 작품 탐색 학습지</p> |
| 통합 | <p>◎ 도슨트가 되어 소개하기</p> <p>◇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을 모둠별로 발표해봅시다.</p> | |

| | | |
|--|--|--|
| | <p>◆ (모둠별 발표)</p> <p>◎ 마무리 하기</p> <p>◇ 도슨트가 되어 작품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고 직접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p> <p>◆ 다른 친구들의 작품 설명을 들어서 더 많은 작품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p>◆ 우리 모둠이 조사한 미술가의 다른 작품들이 궁금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p> | |
|--|--|--|

나) 개인별 작품탐색 학습지

| [미술] 현대미술 감상 | 도슨트가 되어 작품 소개하기 | 학년 반 이름:() |
|--|-----------------|----------------|
| <p>◎ 1. 어떤 작품을 소개하기로 정했나요?</p> <p>◎ 2. 처음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p> | | |
| <p>◎ 3. 다음 질문에 대해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봅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작품의 제목은 무엇이고 작가는 누구인가요? ★ 언제 제작된 작품인가요? ★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어떤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했나요? ★ 이 작품의 배경을 조사해봅시다. </div>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 | |
| <p>◎ 4.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인가요?</p> | | |
| <p>◎ 5. 도슨트가 되어 소개할 내용을 모둠 친구들과 연습해봅시다.</p> | | |

V. 결론 및 제언

최근 2015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되며 미술교과도 시대에 흐름에 따른 변화가 시작되었다. 미술을 이해하고 그 문화를 향유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역량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미술 감상교육 또한 감상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감상교육이 학생들의 경험과 반응을 중시하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 되는 경험, 미술작품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 감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 통합하고 확장해가는 것 등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감상 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학생의 감상 발달 단계를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에서는 표현에서의 사실성을 추구하며 사실적이지 않은 주제에 대해 경시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학년에서는 표현의 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규칙을 깨는 시도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미술이 갖는 특징이 초등학교 학생의 감상교육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대 미술의 특징은 첫째, 작품의 아이디어와 제작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감상을 도울 수 있는 특징이다. 둘째, 현대미술 감상이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작가와 감상자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미술 감상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일상적 경험이 미술과 가깝다고 느낄 수 있으며 개개인의 다양한 반응을 소통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셋째, 작품 주제, 형식, 표현 방법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현대미술 감상을 통해 다원적 가치 존중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미술의 영역과 범위가 해체되고 확장된다는 점이다. 현대미술 감상을 통해 미술작품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통합하여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미술의 특징을 바탕으로 감상지도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현대미술을 통한 감상지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앞선 감상지도 모형의 선행연구를 통해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미적 요소의 관찰과 분석, 미술가·미술사·

작품의 배경, 감상태도, 소통과 공유를 감상의 공통 구성요소로 뽑았다. 또한 감상 지도 모형을 세 가지 비교 관점을 통해 비교한 결과 감상자의 개인적 반응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작품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고려되는지, 형식적 절차보다 유연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영역과 소통하며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현대미술 감상지도 모형을 반응, 탐색, 평가와 판단, 통합이 소통을 바탕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대미술 감상지도 모형에 맞는 수업안 두 가지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대미술 감상 모형을 적용한 실제 현장에서의 미술 수업이 의미 있는 감상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고려할 점이 많다. 따라서 현대미술 감상 모형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의미 있는 감상 수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장에서의 감상 수업이 따로 떨어진 한 두 차시의 개별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학습자의 삶과 연결된 의미 있는 수업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교사 재량에 맞는 재구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단락의 미술 수업 내에서 현대미술 감상 모형의 각 단계를 꼭 모두 거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특정 단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등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현대미술의 특성상 다양한 작품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며 감상하기 위하여 교사의 적절한 피드백과 학생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되면 좋을 것이다. 셋째, 현대미술 감상 모형에 따른 수업이 수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주희, 이지연. (2012). 미적발달이론과 구성주의에 입각한 현대미술 감상교육. **미술교육연구논총**, 33, 1-24.
- 고은실. (2008). 현대 한국 미술비평교육의 내용 연구. **미술교육논총**, 22(3).
- 교육부. (2015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서울: 저자.
- 교육부. (2015b). **미술과 교육과정, 제2015-74호[별책 13]**. 서울: 저자.
- 김병호. (2007). **미술 감상 능력 평가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5학년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 김성숙 외 6인. (2018). **초등학교 미술 지도서**. 지학사.
- 김옥동. (1990).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재복. (1990). **미술과 수업과 평가**. 일지사.
- 김정선. (2018). 무엇이 미술작품 감상을 어렵게 하는가?. **미술교육논총**, 32(4).
- 김정애. (2002).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비평적 감상 교육방법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구.
- 김정희. (2004).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 미술교과의 새로운 내용 모색**. 학지사.
- 김창식. (2001). 초등학교 미술과 감상 영역에서의 수행평가, **한국국제미술교육 학회**, 189-213.
- 김춘일. (1989). **미술교육론**. 기린원.
- 류재만. (2000). 미술감상학습에서 교수-학습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미술교육학 회**, 9.
- 김진엽. (2001). 미적체험에 대한 미학적 이해. **미술교육논총**, 11, 1-12.
- 박정애. (2001). **포스트모던 미술, 미술교육론**. 시공사.
- 박종미, 노용. (2003).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프로그램의 개발 과 교육적 효과. **교육과학연구**, 34(1), 1-18.
- 배진희, 류재만. (2018). 질문생성전략을 활용한 미술관 작품 감상활동이 미술감 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술교육논총**, 32(3).
- 성민우. (2009). 동시대 미술의 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3(3).

- 안금희, 라현숙. (2006). 미술관체험 활동을 통한 미술 감상 프로그램의 실행 연구. **미술교육논총**, 20(2).
- 원미은, 임부연. (2015). 초등학교 미술 감상수업에서 대화주의 탐색. **미술교육논총**, 29(2).
- 이규선, 권준범, 김동영, 김정선, 류재만, 전성수, 최윤재. (2004).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 이성도, 박상돈. (2018).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 관한 고찰. **미술 교육논총**, 32(4), 222-244.
- 이은적. (2007). 초중고 미술과 교과서를 위한 현대미술 교육내용 개발과 체계화 연구 - 20세기 후반 이후의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 전성수. (2004)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열린 미술교육의 관점과 방안**. 학지사.
- 정병관. (1994). **현대미술의 동향**. 서울: 미진사.
- 진영은, 강성원. (2007). 현대미술의 개념 확장과 교육적의미. **미술교육논총**, 21(3), 23-50.
- 최문선. (2014). 현대미술에서 미디어아트의 위상: 상호작용성과 물성의 확장을 중심으로.
-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1997). **초등미술과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Arthur C. D. (1964). The art world, *The journal of philosophy*.
- Arthur C. D. (2004). 예술의 종말 이후, 미술문화.
- Allan Kaprow. (1961). Happenings in the new york scenes.
- Feldman, E, B. (1967). Art as image and idea.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Feldman, E, B.(1970), Becoming human though art-aesthetic experience in the school. *Prentic-Hall*, 8-29
- Hamblen, K. A. (1993). The Emergence of neo-DBA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tlanta, GA, 12-16.

- Harold J., McWhinnie, & Feldman E. B. (1971). *Becoming Human through Art*.
- Lansing, K. M. (1977). *Art. Artist and Art Education*, McGraw Hill Book, N.Y.
- Vy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or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108-157

A B S T R A C T

A Study on Model of Contemporary Art Appreciation

-Focused on 3rd~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Kim, Bo Hwa

Major in Elementary Practical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i Pak

In modern society, appreciation education enrich human sensibility and helps to enjoy art culture and create it with new expressions. It should also help to accept and critically embrace diverse cultures amid the flood of visual media. The 2015 revised curriculum presented an emphasis on students' capabilities in preparation for these future social changes. Appreciation education also needs to be changed to meaningful appreciation education connected to students' lives in preparation for the trend of the times, and to appreciation education in which the viewer actively explores the work.

This study judged that it could be realized through appreciation education using modern art and looked a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appreciation education first in order to present a model of modern art appreciation education. Appreciation education is an activity that includes the inner

psychological actions that the viewer obtains from experiencing works of art, and the cognitive actions that understand, analyze and judge works. The areas of appreciation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ere divided into core concepts of understanding and criticism. The research of prior research into the components of appreciation enabled us to extract common elements by thinking and feeling about the work, observation and analysis of aesthetic elements, background of artists, art history and works, sensitivity, communication and sharing.

Modern art has both the meaning of 'modern' and the meaning of 'conemporary', so its range is very wide. In this study, the scope of modern art was limited to the meaning of 'contemporary art', in which various types of forms, not defined by any one form or a dictionary, are recognized for their plurality. Modern art is difficult to explain by grouping into common forms or characteristics, but compared to traditional art, it was possible to classify four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contemporary art value ideas and processes. Second, you can easily experience it in everyday life. Third, it seeks diversity in form and method, and recognizes plurality in culture as well. Fourth, the distinction between genre and area is blurred and the division is repeated in disintegration and expansion. Thes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t suggest that it should be guided in a different way from the existing appreciation education map.

Thus, the exploration-response-evaluation and judgment-integration with the contemporary art appreciation map were presented as examples of models and classes based on communication. Rather than following the one-sided formal procedures, the model focuses on individual responses and experienc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elps them to know the contextual background of the work, and expands and internalizes into various areas. However, rather than a model of a modern art appreciation map consisting of a single class in real life, a connected class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teachers' own will be more meaningful. And communication is necessary to respect various opinions about appreciation. In addition, we hope that the modern art appreciation map will lead to an assessment that will fit the class according to the model.